

수호의 메뉴판

(‘바로바로 들려줄게, 불만 이어폰’을 읽고)

()학년 ()반 이름()

※ 고물 자판기에서 받은 이어폰을 낀 수호는 손님들의 불만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고쳐 나갔어요. 덕분에 장사가 잘 안되던 엄마의 국수가게에 손님들이 늘어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호는 미래에 자기 가게를 열 꿈을 갖게 되지요.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수호네 가게 메뉴판을 먹음직스럽게 그려 볼까요.

가게 이름	
메뉴1	메뉴2
메뉴3	메뉴4

누구를 부를까?

(‘누구든 불러봐, 저승 호출 벨’을 읽고)

()학년 ()반 이름()

※ 저승 호출 벨을 얻게 된 다진은 그것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이순신 장군, 세종 대왕 등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이 벨을 얻게 된다면 누구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나요? 그 장면을 만화로 그려 봅시다.

호출한 사람 :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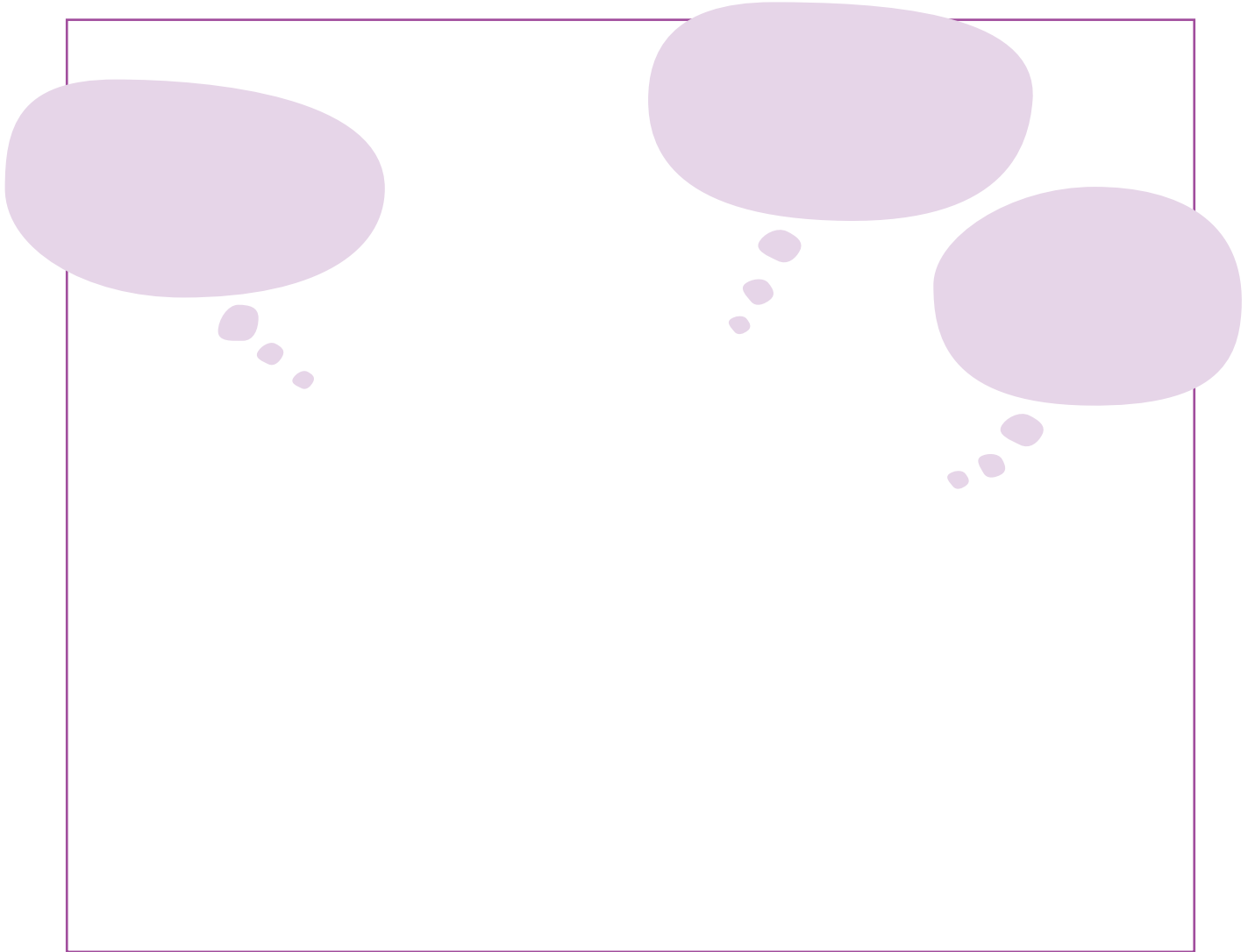
④

저는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예요!

(다 읽고)

()학년 ()반 이름()

※ 이 책을 이끌어 나가는 고물 자판기에 주목해 볼까요? 나만의 디자인으로 고물 자판기를 그리고 고물 자판기의 주제곡도 찾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고물 자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서 생각 주머니 안에 넣어 봅시다.



주제곡	나는 알지~
	행운은 돌고 도는 것~

세 주인공 인터뷰

(다 읽고)

()학년 ()반 이름()

※ 오늘은 세 주인공을 인터뷰하러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수호, 다진, 수지가 수호네 가게에 모였어요. 여러분은 인터뷰 진행자로 참석했죠!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완성해 봅시다. 각 주인공들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고 완성해 주세요.

수호 님, 잘 지내셨죠? 요즘 가게는 어때요?



수호

[Empty speech bubble for Suho's response]

다진 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시죠?



다진

[Empty speech bubble for Dajin's response]

수지 님, 안녕하세요? 이사 간 집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수지

[Empty speech bubble for Sujee's response]

여러분의 공통점은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를 발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얻은 물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수호

[Empty speech bubble for Suho's response]



다진

[Empty speech bubble for Dajin's response]



수지

[Empty speech bubble for Sujee's response]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물건을 끝까지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Suho's response.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Dajin's response.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Soji's response.

여러분은 고물 자판기의 물건으로 이어진 인연이네요. 내 물건을 받은 친구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수지 친구는 내 물건을 받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Suho's response.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Dajin's response.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Soji's response.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Large purple speech bubble for the final message.

수호의 메뉴판

(‘바로바로 들려줄게, 불만 이어폰’을 읽고)

()학년 ()반 이름()

※ 고물 자판기에서 받은 이어폰을 낀 수호는 손님들의 불만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고쳐 나갔어요. 덕분에 장사가 잘 안되던 엄마의 국수가게에 손님들이 늘어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호는 미래에 자기 가게를 열 꿈을 갖게 되지요.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수호네 가게 메뉴판을 먹음직스럽게 그려 볼까요.

가게 이름		생략	
메뉴1		메뉴2	
메뉴3		메뉴4	

누구를 부를까?

(‘누구든 불러봐, 저승 호출 벨’을 읽고)

()학년 ()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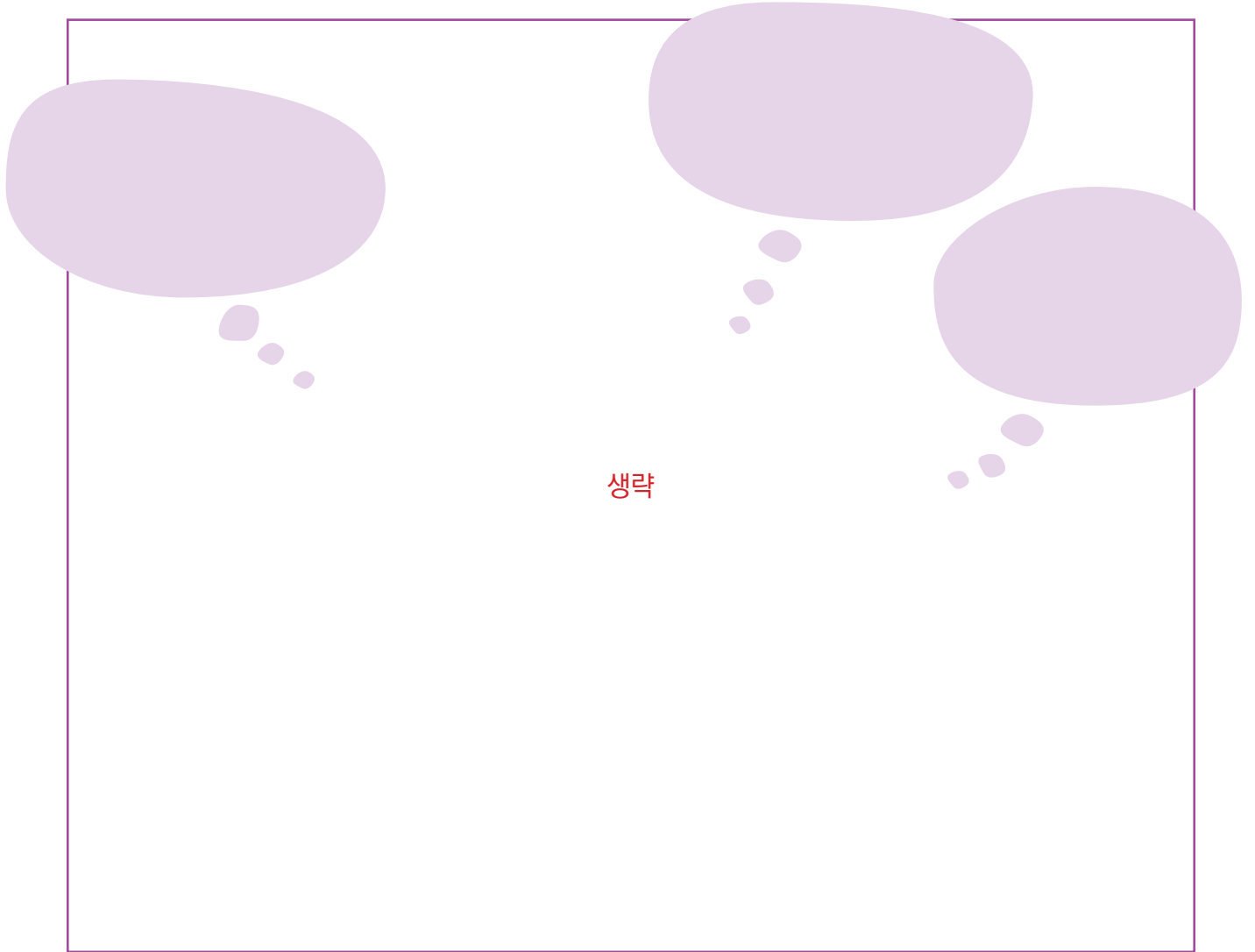
※ 저승 호출 벨을 얻게 된 다진은 그것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이순신 장군, 세종 대왕 등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이 벨을 얻게 된다면 누구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나요? 그 장면을 만화로 그려 봅시다.

호출한 사람 :	
<p>①</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생략</p>	<p>②</p>
<p>③</p>	<p>④</p>

저는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예요! (다 읽고)

()학년 ()반 이름()

※ 이 책을 이끌어 나가는 고물 자판기에 주목해 볼까요? 나만의 디자인으로 고물 자판기를 그리고 고물 자판기의 주제곡도 찾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고물 자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서 생각 주머니 안에 넣어 봅시다.



주제곡	나는 알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오,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
	행운은 돌고 도는 것~ 받았으면 주기도 해야지 이번엔 당신이 줄 차례~ 당신은 뭘 줄 수 있을까?

세 주인공 인터뷰

(다 읽고)

()학년 ()반 이름()

※ 오늘은 세 주인공을 인터뷰하러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수호, 다진, 수지가 수호네 가게에 모였어요. 여러분은 인터뷰 진행자로 참석했죠!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완성해 봅시다. 각 주인공들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고 완성해 주세요.

수호 님, 잘 지내셨죠? 요즘 가게는 어때요?



수호

(예시) 손님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더니 날마다 손님이 늘어서 이제 대기가 생길 정도예요. 특히 국가스 세트가 완전 인기예요!

다진 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시죠?



다진

(예시) 네, 항상 보고 싶지요. 특히 속상한 일이 있었던 날은 할머니를 다시 불러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잘 계신 걸 봤으니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수지 님, 안녕하세요? 이사 간 집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수지

(예시)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많이 적응했어요. 엄마랑 둘만의 시간도,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노력했더니 어느새 엄마랑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공통점은 기기묘묘 고물 재판기를 발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재판기에서 얻은 물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수호

(예시) 저한테 온 물건은 이어폰이었어요. 그걸 끼니까 사람들 마음속의 불만이 들리지 뭐예요! 특히 우리 가게에 온 손님들 불만이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엄마한테 말해서 바로바로 고치게 했죠.



다진

(예시) 저는 호출 벨을 받았는데요, 그게 저승 호출 벨이었어요. 벨을 누르고 돌아가신 분을 부르면 저승에 있는 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부르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 대왕도 불렀지요.



수지

(예시) 저는 파란색 리본 끈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 두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운 날 뱀처럼 기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엄마 아빠 손을 묶어 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리본은 제 눈에만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물건을 끝까지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호

(예시) 어느 날 물이 있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어폰을 끼지 않아도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다진

(예시) 저는 호출 벨을 동네 공원 호수에 버렸어요. 왠지 할머니를 계속 부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승에 간 분은 거기에서 잘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리운 건 그리운 대로 두는 것도 좋은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수지

(예시) 저는 이사 나오면서 그 집 문고리에 리본을 걸어 두고 나왔어요. 우리 가족이 거기 살았었다는 흔적을 한 개쯤 남겨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리본이 새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고물 자판기의 물건으로 이어진 인연이네요. 내 물건을 받은 친구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수지 친구는 내 물건을 받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호

(예시) 다진아! 주머니 속에 있어서 무심코 넣은 호출 벨이 저승 호출 벨이 되다니 너무 놀라워! 그걸로 네가 할머니를 뵈었다니 잘됐다. 앞으로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잘 지내.



다진

(예시) 수지야! 그 리본 내가 받은 과자 꾸러미 묶은 평범한 리본이었는데 그게 사람을 묶는 리본이 되었다니 놀라워. 리본 효과가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억지로 묶어지지 않는 것도 있나 봐. 우리 힘내고 즐겁게 지내자.



수지

(예시) 누구일지 모르지만 내 반짱고리를 받을 친구야! 반짱고리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바랄게. 다음 이야기 기대할게!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예시)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자. 안녕!
우리 가게에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자!

